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승리 65돐
에 즈음하여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혁명, 조국
과 인민을 결사
수호한 조국해방
전쟁참전렬사들
의 불굴의 투쟁
정신과 영웅적위
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
고 하시면서 전
체 인민군장병들
과 당원들과 근
로자들, 새 세대

26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 특군대장,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길 특군대장,
인민무력상인 노광철 특군대장,
양형섭, 리명수, 태종수
전쟁로병들이 여기에 함께 참
가하였다.

애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
되었으며 이어 화환진정곡
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인민
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
였다.

들이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
의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기라는 확신
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조국해방
전쟁참전렬사모
앞에서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
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
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활
영장에 나오시



생의 순간순간
을 빛내이리라
는 기대를 표
명하시고 대회
참가자들과 함
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대회참
가자들은 번
영하는 로동당
시대에 복락을
누리며 여생을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각별한

자 로병들은 자애로운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 안아온 1950년대 조국방위자 드리시었다.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품에 달려가 안기며 뿔어오르 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로병 들의 불멸의 위훈이 있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는 걱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 오늘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로씨 조국을 지킨 은인들인 크나큰 은정을 소중히 간직
참가자들은 전쟁로병들의 시였다.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며 사 전쟁로병들이 로당익장하며 하고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를
삶을 값높이 빛내어주시며 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 후대들의 심장마다에 1950년 창조하던 그 정신으로 혁명의
해같은 은총을 거듭 베풀어주 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충정 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 대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조 꽃을 계속 피워갈 열의에 충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시면서 전체 전쟁로병동지들 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심어 만되어있었다.
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였다. 용감히 싸워 승리의 7.27을 에게 머리숙여 뜨거운 인사를 주는 훌륭한 스승, 교양자로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승 65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릉원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군중명에 위병대가 정렬하여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나라 국가가 주악되

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화환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에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땃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령사들은 영생할 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중국인민지원군 령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이어 모안영 동지의 묘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화환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모안영 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중국인민지원군 령사들의 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의 당과 정부와 인민은 건국초기의 많은 곤난을 무릅쓰고 자기의 끝끝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서슴없이 파견하여 우리 인민의 정의 위업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승리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이 땅

의 산천초목에는 중국동지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고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는 조선혁명가들의 넋이 잠들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중관계는 결코 지리적으로 가까와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맺어진 전투적 우의와 진실한 신뢰로 굳게 결합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수하고 공고한 친선관계로 발전하고있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우리

가 생사존망의 엄중한 형편에 처하였을 때 목숨으로 정당한 위업을 수호하고 붉은 피로 평화를 이룩해낸 중국동지들의 위훈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은 예나 지금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믿음직한 형제의 나라, 위대한 벼를 가지고있는것을 긍지스럽게 생각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위훈을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가는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책임이고 도덕의 리이며 숭고한 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여러곳에 있는 지원군렬사묘들을 친혈육과도 같은 뜨거운 정을 다해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원도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원도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2년전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들에게도 122호양묘장과 같이 한해에 2,00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토지절약형, 로컬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며 시범적으로 강원도양묘장을 도들에게 건설하는 양묘장들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설계와 시공, 자금과 자재, 설비보장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시며 양묘장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피뎠는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수십정보의 면적에 수지경관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삼목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구역과 관리청사, 종합편의시설, 살림집 등 57개의 건물과 시설물을 갖춘 현대적인 양묘장을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이제나저제나 원수님을 모실 영광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간 2,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가 또 하나 멋들어지게 일떠세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강원도에서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지난 1년간 양묘장관리



하는 초소에 서서 성실한 애국의 땀을 바쳐가고있는것을 고맙게 생각하오, 항상 마음속근복을 벗지 말고 우리 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이 행복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 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도양묘장을 대단히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당의 호소를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며 당정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일어설 줄 아는 강원도사람들의 투쟁기풍과 정신세계가 확실히 다르다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요란한 양묘장을 건설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탄복하게 된다고, 당정책관철에서 늘 제일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대책함으로써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만한 산림자원은 경제건설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도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으로, 자연원료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 병기창과도 같은 양묘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일떠세우고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에서 양묘장의 모든 요소를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미학성과 실용성이 보장되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웠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도의 건설력량이 강화되고 기능공대렬이 늘었을것이라고, 이번에 중요건설부대에서 내려보낸 20명의 기능공들이 시공지도를 맡아하면서 도건설

자들에게도 기술전습을 주었다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도들의 건설력량을 장성시켜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 좋은 방식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묘장건설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기본적으로 도자체로 생산보장하였으며 경기질생산과 종자선별 및 파종에 필요한 설비들을 국가와 학원을 비롯한 국내 해당 기관들에서 제작설치함으로써 만족할만 하고 자랑할만 한 국산화비중을 보장하였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이 한계단 더 높아진 양묘장의 본보기가 건설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각 도들에서 현재 진행하고있는 양묘장건설을 빨리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양묘장의 종업원들이 제대군인부부의 살림집을

방문하시오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가정살림현도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대군인부부와 자리를 함께 하시고 새 집이 살기 좋은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자식은 몇명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는가, 제대되어 농업대학을 나왔다는데 공부하기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대군인부부가 군사복무시절에 입던 군복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신 맞은편 벽면에 나란히 걸어놓은것을 보시고 이 동무들이 아직도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수령님들을 결사보위하던 혁명군대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고있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지금 서있는 초소는 조국보위초소 못지않게 중요한 당정책관철의 전초선이요, 제대된 후에도 동무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안고 당에서 걱정하고 제일로 중요시

저 가치를 들고나가는 강원도당에는 일감을 줄 몫이 있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아글라글 뛰여다니는 강원도일군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싶다고 하시면서 도의 경제사업에 절실한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이 이 가치를 높이 들고 강원도사람들처럼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도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산림복구전투의 전초병, 척후병, 직접적인 담당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나무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군인들의 식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떡운공을 많이 만들어 군인들에게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에 떡운공종균 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액체로 된 종균을 만들어 부대, 구분대들에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만으로 떡운공액체종균 생산설비 39종에 57대를 제작하여 년산 60t능력의 떡운공액체종균생산공정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이 종합적인 식료공공장으로 전변된 자랑찬 행로속에는 우리 군인들에게 공급할 기초식품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생의 마지막까지 여러 차례나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어리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군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산계획을 항상 지표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장군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병사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집행정형과 최근년간 공장의 생산정형, 원료보장실태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매해 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맛도 좋고 영양학적요구를 만족시키는 여러가지 기초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힘을 넣어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식료공장들에서는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

면서 원료, 식료품첨가제,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위생학적검사를 현대적인 측정수단들을 충분히 갖추고 엄격히 진행하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새로 꾸린 떡운공액체종균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국적으로 콩농사를 증시하여 콩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군인들에게 콩음식을 다양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특히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떡운공을 정상적으로 급식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질 좋은 떡운공액체종균을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은것은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료준비공정, 콩유평공정, 액체종균배양공정, 균체려과 및 회석공정, 포장공정 등 모든공정이 호르몬화되고 생산장의 무균화를 철저히 실현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초식품직장, 정미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3년전에 공장을 개건 현대화하였는데 보고 또 보아도 정말 손색이 없다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를 위한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계속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앞으로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군인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며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각 도들에 종합적인 식료공장을 하나씩 잘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하여 주신 간곡한 교시에 따라 2010년 1월에 조업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는 지난 8년간 생산능력을 부단히 장성시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150여가지의 맛 좋은 당과류와 식료가공품들을 생

산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식료가공기지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식료가공설비들이 준비하게 늘어진 작업장들에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폭포처럼 쉬임없이 쏟아지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시며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제

고를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해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들을 팡팡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식료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가지수가 정말 많다고, 별의 별것이 다 있다고 하시며 포장도 다양하고 수준높게 잘하였다고, 최근에 식료공업부문에서 제품포장과 상표도안수준

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제품들이 도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국각지로 퍼져가고 중앙의 식료공장제품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인 식료공장들사이의 제품경쟁을 활발히 벌려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열풍속에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은 엄

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며 인민들의 평가속에 제품의 끊임없는 질적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넣어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이 인민들이 항상 즐겨찾는 제품,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6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5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관 조건이 각이한 식료제품들에 대한 품질검사, 감독사업을 엄격하고도 정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과 의약품인 경우 품질과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제품검사체도를 강화하며 검사방법과 수단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공장에서 모든 생산공정들을 보다 완벽하게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하기 위한 현대화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의 기술력량과 우리의 자재, 설비에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공장을 국산화, 주체화된 생산기지로 꾸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전망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완강하게 실현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 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종업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준비시켜 생산공정의 기술



개선과 설비현대화에서 한몫하도록 하며 새로운 기술혁신안, 기발한 착상들이 생산자대중속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각 도마다 품들어 꾸러주신 종합식료공장들중에서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이 제일 뚜렷한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앞서나가며 인민 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당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하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백옥같은 충정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영활동을 잘하고 질 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생가방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도들마다에 수십만개의 학생가방들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원만한 갖추어진것만큼 이제는 가방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 도의 가방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놓고 질평가를 똑똑히 하고 요구성을 높임으로써은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가방의 질적수준이 똑같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에서 가방천과 자크, 레프, 합성가죽, 금구류와 수지가공품을 비롯한 가방생산원료와 자재들을 계획화하여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도들에 꾸러진 가방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은 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키고 생산공정마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가방공장들 사이의 기술교류를 조직하여 서로 배우고 지혜를 합쳐가며 가방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짧은 기간에 공장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번듯하게 꾸러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아글라갈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친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영예군인들을 아끼고 존대하며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당위원회가 영예군인공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잘 도와주라고, 그들이 후대들을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에서 성실한 로동

본사기자

습장과 가방, 학용품, 교복을 안겨주어 어릴 때부터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

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가방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하나의 가방을 만들어도 자기 자식에

게 만들어주는 어머니심정으로 질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고 심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거듭 부탁하시였다.

의 땀방울을 흘리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사랑과 정으로 승리를 안아오신 희세의 위인

지나온 인류역사의 갈피마다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에서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정의의 해방전쟁을 이끌어 강대한 침략세력을 무찌르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한 실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로부터 사랑은 겁을 이긴다고 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철학자는 《사랑이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힘이고 무기》라고 하였고 역사가들은 《인간사회의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세인이 《원자판과 보초의 대결》이라고 평한 지난 조선전쟁에서 청소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전승의 찬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와 그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하나가 같이 봉착 싸웠기 때문이다.

특히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군대와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싸우는 조선의 힘을 백배 해준 승리의 활력소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자기 한 목숨 서슴없이 바쳐가며 끝없는 피를 흘린 조국은 절대위인께서 인민사랑의 숭고한 리념을 안으시고 세우신 인민의 세상이고 삶의 귀중한 요람이었다.

어제날 일제놈의 발굽 밑에 신음하며 식민지노예생활을 하던 이 땅의 수많은 남녀노소가 수령님 찾아오고 일떠세워진 인민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갔고 복된 생활을 누렸다.

어제날의 머슴꾼이 땅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농사를 짓고 자본가들의 착취축에 허덕이던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게 해 준 제노도, 남촌녀비의 사보트순속에 눈물도 치마고름이 마를 새 없던 녀인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에, 누구나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펼수 있게 해준 고마운 시책...

사람들 누구누가 정치의 주인, 재부의 창조자, 권리의 향유자로 되었다.

이런 참다운 인민의 세상을 앞 흑속에 물이날으려고 침략자들이 전쟁의 불기름을 불어왔으니 어찌 사람들이 분노하고 조국수호의 결전에 떨쳐나서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깊이 새겨 가는 근로자들

하기에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로 돌릴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의 군대와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조국의 존초를 막고 부대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 싸움의 나날 자기의 한몸을 바쳐 적의 화구를 막고 부대의 진격로를 연 애절한 군인도 있었고 전선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보타를 든트러틀이 뛰고 받을 갈고 씨를 뿌려 전사 알곡생산을 훌륭히 보장할 수 많은 여성들도 있었다.

가 렉쳐 철한 전화의 나날 령도자의 뜨거운 인민의 사랑은 싸우는 군대와 인민에게 더욱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사들과 함께 생각과 노력을 같이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창조로 고무해주시었다.

전선의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고, 전선에서는 이 시각도 전사들이 파총리며 싸우고있는 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하고 하시며 립진강철다리를 건너 최전선으로 찾아가신 위대한 수령님이다. 발발에서는 립진강의 거품은 물결이 사뭇쳐호르고 하늘에서는 갈가마귀처럼 검절기예 달러드는 적비행기 가 언제 날아들어 폭격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첩다리로 대낮도 아닌 캄캄한 밤에 조명도 없이 차를 몰아간다는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침묵을 넘고넘으며 한치 또 한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

사들을 찾아 포연속을 헤쳐가신 사랑의 화선철리길 위에 새겨진 전철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군인들에게 공급할 시제훈공품을 몸소 신고 산길과 진창길을 걸으시며 신발의 질과 부족점을 가늠해보신 사랑의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1211고지방위자들의 식생활을 녀려하시며 공을 보내주어 전사들이 풍나물도 길러먹고 두부도 해먹도록 해주셨고 언젠인가는 고지의 전사들을 위해 고등어도 보내주시며 그 보관대책과 로리 방법을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이다.

어버이 수령님의 불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있었기때문에 1211고지방위자들은 나무 한그루 성황이 없이 타버리는 불바다 속에서도 승리를 락관하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불사조와 같이 고지를 지켜 영용하게 싸울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전사들의 단장을 위해 전선길에서 찬이슬을 맞으신 사연, 몸소 가구신 밤나무에서 단 밤을 전사들에게 보내주신 사실, 전화의 나날에 화선후양소를 내오도록 하고 한 인민군전사의 가족을 위해 류태없는 구출작전도 조직해주시신 전철같은 이야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은 인민군인들이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하게 한 원천이었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위해 베푸신 사랑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어버이 수령님께서선 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전선의 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건강과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격진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전반적부상치로제가 실시되는 것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전선과 후방에서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싸우고있는 인민들에게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건사업을 위한 자금보장, 물질적보장사업 등에도 깊은 관심을 두셨다.

주제41(1952)년 10월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결정되었고 그해 11월에는 무상치로제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203호가 발표되었으며 그다음해 1월부터는 전반적부상치로제가 실시되었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실시된 전반적부상치로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치가 되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가족들에게 식량공급량을 늘리는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었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많은 생필품들이 인민들에게 공급되

었다. 국가장기보조금에 관한 내각결정, 전제민주호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식량이 부족한 빈농민들에게 1952년도 농업현물세와 국가대여곡 등을 면제할데 관한 내각결정, 빈농민 및 형세 어민들의 경제형편개선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등의 인민적 시책들이 련이어 실시되었다.

최고사령부에서 정공업전람회 가 진행되고 이를 계기로 정공업과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심한 인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일어났다. 전선에는 한알의 총알, 한발의 포탄도 귀하였지만 군수품이 아닌 학생들의 교과서, 방화차, 실려 수송되고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을 교정으로 부르는 전쟁력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진것도 싸우는 조선에서였다.

전화의 나날 유자녀들과 전제고아들을 나라에서 맡아키우도록 하시어 유자녀학원과 유자녀보육원, 초등학원과 애육원들이 세워져 아이들의 방랑한 글소리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주신 어버이 수령님이다.

이처럼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생명의 젓줄기로 하여 사람들은 포화속에서도, 불비속에서도 생명의 터전을 지켜싸웠으며 조국건설의 불꽃들을 마련해나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는 군대와 인민을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는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받을 때 기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령도를 령사에게 진리로 새겨졌다.

최고사령관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들간의 사랑과 믿음, 총정교

달라진 작전시간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대는 서울해방작전을 앞두고있었다. 각 령함부대들이 수행하여야 할 작전방향을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서울시 가전을 밤에 하지 말고 낮이 샌 다음에 하도록 할 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리시면서 건물관 리조를 서울에 파견하여 건물들을 장악하며 남반부인민들에게 인민군대의 건설할 장교를 보여주며 인민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전쟁에서 파괴와 희생은 불가피한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서울시내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날이 밝은 후에 총공격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셨다. 하여 인민군대는 반공적으로 이행하여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울해방작전을 단행하였고 시민들의 생명재산과 경복궁, 덕수궁, 남대문을 비롯한 문화유적들은 자그마한 손상도 입지 않았다.

한강으로 떠내려간 나무로 막들

전화의 나날 남녘인민들의 생명재산보호와 생활안정보장에 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삼복이 한창인 무렵에 벌써 서울시 민들의 겨울용 땀갈문제까지 녀려하시였다.

어느날 해당부분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서울시민들의 겨울철땀갈보장대책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그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어야 하며 땀갈문재와 같은것을 예견성있게 풀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서울시의 인구나 세대수, 땀갈무량까지 계산하시었고 채별시기와 채별지를 정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드디어 9월 하순에는 계획한 화복 전망이 해결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선상황이 급변하여 예제 마련한 땀갈무량치가 그만큼 되었다.

그 형편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땀갈문재를 불태워버릴것이 아니라 토막을 내어 강물에 띄워 보내도록 이르셨다. 남녘의 주민들이 건져서 땀갈문재 리용하도록 하시려는 우심깊은 사랑의 조치였다. 이렇게 되어 전쟁시기에 한강으로는 수천 수만개의 땀갈문재들이 떠치며 떠내려가는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제 5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진 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전승의 자랑스런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가는 승리자들의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제5차 전국로병대회 가 7월 2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달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전쟁로병들의 애국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았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쟁로병들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필승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강대한 힘과 기상을 높이 떨쳐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사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체국주의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가렬한 전쟁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보내였다.

또한 함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높이 인민군대와 한전호에서 어께걸고 피흘려 싸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과 로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였다.

그는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미중우의 판각리싸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탁월한 령공술의 빛나는 승리이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전군, 전민을 원추적범의 성전으로 불러일으키시고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깃부셔버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승을 안아오는 나날에 영용한 인민군용사들은 영인불멸할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수령의 두리에 결사의 전선력으로 봉착된 군대와 인민은 불패이라는 철리를 력사애로 새기였다.

이것은 전화의 로병들이 피로써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준 더없이 귀중한 재부이다.

인민군용사들은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존엄있고 행복한 새 생활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강대한 힘과 기상을 높이 떨쳐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경의를 드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열화같은 애국의 정신으로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냈으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 결사의 의지로 만만시련을 뚫고나가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 대중적영웅주의, 군자리혁명정신은 20세기의 가장 빛나는 군사적기적을 낳게 한 불패의 힘이었으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한 사상정신적원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이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7.27의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들에 련 전진승하여올수 있었다.

보고자는 전쟁의 모습이 맺은 때로부터 수십성상 우리 로병들이 화선명사의 그 정신과 기백으로 당의 혁명업무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당과 국가, 군대의 팔간으로 내세우시고 끝없이 아끼셨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보고자는 조선혁명적 승리를 승리에, 전우애의 새 전설로 수놓아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

족을 위해 흘린 로병들의 붉은 피를 다 돌려주게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병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크게 경축하는것을 전승화도록 하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어 조국을 위하여 목숨바친 영웅전사들에게 생명의 삶을 안겨주시였다고 그는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속에 우리 전쟁로병들의 불멸의 공적과 값높은 삶은 생명의 삶을 안겨주시였다고 그는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이러 인민군대를 대표하여 김충철 조선인민군 장령,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진행된 제5차 전국로병대회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주제조선의 자랑스런 승리의 력사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천만군민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전화의 나날에 취해진 숭고한 동포애적조치

동성희

본사기자



가만히 있어도 졸졸 흘러 내리는 땀이 온몸을 적시는 삼복철이다. 찌는듯 한 무더위에 땀은 나뉠새도 입맛은 자연히 떨어지는 삼복철에 무더위를 물리치고 허약해진 몸을 보강하는데 으뜸가는 음식은 어떤것일까.

얼마전 우리는 통일거리에 위치한 평양단고기집을 찾았다. 때마침 점심시간이어서 평양단고기집 앞은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과 금방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빈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고 앉은 우리의 귀전에 단고기국을 먹으며 사람들이 즐겁게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복철에는 뉘니뉘니해도 단고기국이상 없나오. 옛날부터 삼복철에는 단고기국을 먹어야 장수한다고 했고 그

래서 단고기국을 보신탕이라고도 했나오.》

초복에도 왔지만 오늘은 마음먹고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온 가족이 함께 왔다는 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였다.

그런가 하면 《철이야, 삼복철 단고기국은 발통에 떨어쳐도 약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 국물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한다.》며 아이의 등을 두드리는 녀인도 있었다.

잠시후 김이 문문 나는 단고기국이 나왔다. 노란 쫄면이 섞인 밤에 기름이 뚝뚝 뜬 단고기국, 갖가지 양념을 한 단고기국 등 두 종류로 제공된다고 했다.

그 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는 단고기국에 밥을 말

삼복철 우수밥 즐겁게 찾는 곳

아 밥을 똑똑 흘리며 먹는 그 재미는 또... 어느새 그곳을 비우고나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 속은 금방 땀수를 들이킨 듯 시원하고 거뜬했다.

어쩌면 이렇게 단고기국을 맛있게 할까 하는 생각을 안고 우리는 박혜영 평양단고기집 지배인을 만났다. 단고기국을 맛있게 잘 먹었다는 우리에게 그는 사람들로 부터 이런 인사를 받을 때 가끔 기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단고기국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여러가지

단고기료를 만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데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단고기집의 건축형성안도 보아주시고 통일거리의 명당자리에 그 위치도 잡아주시었으며 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젠가들이 평양단고기집의 요리사들이 만든 단고기국들을 보아주시고 국보적인 음식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신데 대하여... 이어 우리는 이곳 조정에 요리사를 만났다. 전국적인 단고기요리경연에 참가하여 여러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그는 단고기는 다른 고기들에 비해 소화흡수율이 높고 동맥경화증을 예방치료하는데 좋은 물질이 많이 포함

되어있다고 하면서 오늘 단고기요리는 찜, 무침, 졸임, 볶음, 탕채, 보쌈, 무 등 각종 요리제법들을 다 갖춘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으로 더욱 발전봉부화되었다고 말하였다.

이곳 지배인은 지금까지 많은 남녘동포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손님들이 평양단고기집에 찾아와 봉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평양의 단고기는 조선민족

음식의 전형이다.》,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이런 요리는 처음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는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났음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줄 모른다는 평양단고기집의 풍경에서 나날이 질어가는 민족의 향취를 한껏 느끼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박철남



10세기 후반기부터 13세기 까지 구주라고 불렀던 구성의 력사유적들 가운데는 구성남문도 있다.

구성남문은 옛 읍을 둘러싸고있던 구주성의 여러개 성문 가운데서 제일 규모가 크고 건축술이 우수한 정남문으로서 《위원루》, 《진남루》, 《완대루》라고도 불렀다.

구성남문은 구주성의 북쪽에 솟은 리구산 밑에 남쪽을 향하여 서있다. 구성남문은 994년 구주성을 쌓으면서 함께 세웠으며 1702년 성벽을 고쳐 쌓으면서 이 남문도 고쳐지었다.

구성남문의 축대는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석으로 쌓고 그 북쪽에 무지개문길을

섰다.

축대는 무지개문길이 뚫린 부분에서 안으로 조금 들어 쟁이 그 역세기를 높였다.

축대우에 세운 2층문루는 정면 3칸(10.7m), 측면 3칸(10m)의 방형평면의 장중한 건물이다.

두공은 포식으로 하고 1층

를 형성한것이다. 그 길이는 1.73m, 너비는 1.14m, 높이는 0.6m이며 조각솜씨가 매우 우수하다.

구성남문은 외채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문은 여러차례의 싸움에서 단 한번도 외적들에게 들과 당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선조들의 용감성과 함께 성시설의 견고성을 잘 알수 있다.

구성남문은 외채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싸움들에서 발휘된 우리 선조들의 두철한 애국정신과 용감성, 독무하고 세련된 우수한 건축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역사유적 구성남문

에서는 3포로, 2층에서는 바깥 5포, 안 7포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둥사이포대신에 화반을 놓은 흔적 같은 수법을 쓰고있다.

문루에는 5색이 아롱진 모루단청을 하여 그 건축미를 돋구었다.

문루의 주춧돌가운데서 북쪽의 남쪽주춧돌 2개는 거부



《천하도》

15세기 중엽에 제작된 세계지도첩인 《천하도》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고있는 가장 오랜 세계지도첩의 하나이다.

《천하여지도》라고도 하며 그 폭은 13폭으로 되어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세계지도와 우리 나라의 전도 및 지방도들을 하나로 묶어 1469년에 제작되었다.

그후 1511년에 《천하도》를 수정보충하여 《천하여지도》를 만들었다.

《천하도》는 세계전도인 천하도, 조선전도인 동국팔도대총도, 8개의 도별지도, 중국도, 일본국도, 류큐국도 등이 한폭으로 되어있다.

매개 도폭의 크기는 길이 27cm, 너비 33cm안팎이다.

도면내용의 축척은 거기에 묘사된 영역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천하도》에는 동, 서, 남, 북의 네방위와 세계의 특지와 바다의 배치, 주요한 강과 섬들 및 사막과 산맥 등의 특성, 나라들의 이름과 주민들의 특성이 그림 또는 주기로 표시되어 있다.

바다와 강은 물색, 산은 땅색 혹은 진한 푸른색으로 표시하고 주요 나라들의 수도와 우리 나라의 군급이상의 지명들은 기호, 주기와 함께 색으로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령마를 길들인 소년 (2)

글 황원철, 그림 김영희

환웅은 그제서야 사태를 대강 짐작할수 있었다. 어린 단군은 틀림없이 청계골에 나타난 령마소문때문에 심야행을 하고있을것이다. 그리고 그지없이 어지고 순박하지만 한 저 우체군사는 자기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단군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에서 탈선되게 하였음을 깨닫고 그만에 이 심한 큰 죄로 여겨져 자책감을 못이겨 죽음을 찾아온것이다.

환웅은 동정과 련연에 찬눈길로 우체를 더욱 바라보다가 부겁게 입을 열었다. 《사람이 귀로 듣는 소리를 입으로 옮기는것은 지금 허 자언스런 일인즉 너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늙은 아버지께 진중히 반성하지 않는 내 아들녀석이다. 그러니 너는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 단군녀석을 바로 잡을 방도는 내가 좀 생각해볼테니 너는 내 아들들을 더 잘 도와주기 바라노라.》

《은혜 실로 망국후이다. 이 몸을 초개와 같이 바쳐서라도 족장님의 하늘같은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우체군사가 깊숙이 질하고 물리갔으나 족장 환웅은 아직도 모르는지 자기 생각에 골똘하고있을뿐이다.

환웅은 지금 청계골에 나

라난 령마를 잡던 일을 떠올리고있었다.

박달종족의 령마에 있는 청계골은 수림이 울창하고 깊이가 깊어졌으며 절묘한 산들로 둘러싸인 골짜기로서 오래전부터 박달족사람들속에서 신선이 나오는 곳으로 불려왔고있었다.

바로 그 청계골에서 얼마전 환웅은 종족의 재가들과 장수들과 함께 사냥놀이를 벌린적이 있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산만이 언제 그랬던나설게 연록색의 고운 아새욱차림으로 성큼 다가오고 코끝에 마쳐오는 향긋한 춘풍에 마음도 절로 흥드러우지는 따뜻한 봄날이였다.

이윽고 사냥준비가 끝나자 두—하는 불나팔소리와 함께 사망에서 유아— 유아—하는 물이군들의 합성이 터져올랐다.

그 소리에 놀란 산짐승들이 수림속 여기저기서 튀거나 달아나기 시작했고 때를 놓칠새라 재가들과 장수들은 짐승들을 쫓아가며 어지러이 활을 쏘아댔다.

나이는 들었어도 헌헌대장부의 호형하고 왕성한 활기만은 여적 간직하고있던 족장 환웅도 앞에 나타난 노루를 쫓아 말을 달려기 시작했다. 환웅의 뒤를 호위군사가 가이질세라 바두 따라붙었다. 어느덧 노루와의 거리를 일정한 간격까지 좁힌 환

웅이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막 겨냥하려는 때였다. 갑자기 밤밭길의 커다란 짐승이 환웅과 노루사이에 불쑥 뛰어드는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환웅의 말이 앞 발로 허공을 차며 호호—하고 울어댔다. 그 바람에 말우에서 허중 나뉘어질뻔한 환웅은 자세를 가다듬으며 앞을 노려보았다.

환웅의 앞에 뛰어들어 짐승도 저으기 뜻밖인지 일시 주춤하는것 같더니 그대로 뛰 하고 몸을 날리며 손살같이 환웅의 앞을 가로질러 달아나는것이였다. 그 짐승은 야생마였다. 그러나 야생마치고는 참으로 보기 드문 말이 아닐수 없었다.

배열구리에 흰털문양이 새겨져있고 미끈하고 탄력적인 잔둥이 사슴의 등어리를 띤

상시켰으며 힘있게 내달는 네발굽에서 하얀 물갈기같은 것이 날리고있었다. 첫눈에도 아주 훌륭한 말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호기심이 동한 환웅은 말머리를 돌려 추적하려고 하였으나 얼마 못가서 말을 멈춰세우고말았다. 야생마가 어찌나 빠르지 자기 말을 가지고서 어림도 없었던것이었다. 울창한 수림속을 산재비마냥 빠르게 누비며 멀어져가는 야생마를 이윽도록 바라보던 환웅의 입에서는 부지중 찬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 달려가는게 아니라 마치 날아가는것 같구나. 참으로 훌륭한 말이지고.》

이때 어느결에 당도했는지 뒤에서 호위군사가 조심스레 어뢰었다.

《저 말은 지금 향간에서 소문이 자자한 령마인줄 아뢰오. 청계골에 나타난 저 말을 두고 기린마라느니, 령마라느니 말이 많소이다.》

《령마?! 기린마?!》

환웅이 의아한 눈길로 호위군사를 돌아보았다. 호위군사가 황송한듯 말우에서 허리를 굽히며 환웅에게 설명했다.

《여기 청계골의 맨 바위에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사시창철 솟아나오는 맑은 샘이 있사운데 그 물맛의 달고 시원함이 꿀과 얼음에도 비길수 없고 그 약효가 참으로 신비하다고 하더이다. 하여 이곳 사람들은 그 샘물 신선이 내려와 마시곤 하는 신령스런 샘이란 뜻에서 령천이라 불렀사는데 언제부터인가 저 말이 꼭 동이 트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령천에 나타나 샘물을 마시고 가곤 하나이다.》

족장님도 방금 보신바처럼 말의 우족 선 자세와 내달는 기상이 이루 현연할수 없이 황홀하고 용맹스러울뿐 아니라 네개의 발굽에 걸고 하얀 털이 돌아있어 달릴 때는 발굽밑에서 흰구름이 피어나는듯 하오이다.

하도 기이한 말이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을 잡고저 곳곳에 합정을 파고 큰 용노를 놓았으나 그때마다 교묘하게 그것들을 뛰어넘고 령천근처에 사람이 숨어있는 기색만 보이면 접근조차 아니하는 등 실로 신묘하기 그지없었소이다. 그래서 지금 향간에서는 저 말이 보통말이 아니라는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청산류수로 흐르던 호위군사의 얘기가 끝나자 환웅은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속세인간들의 눈에 그렇듯 수시로 띄이는 말이 어찌 신령스러울것이나.

저 말을 산채로 잡아 길들이기만 하면 훌륭한 준마가 될것이니 내 꼭 저길 손에 넣어야겠다.》

야생마를 본 첫 순간부터 그에 매혹된 환웅은 호위군사의 얘기까지 듣고보니 그 말에 대한 욕심이 더욱 굳어져 갔다. 그는 누구도 붙잡지 못했다는 저 말을 자기가 붙잡는다면 훌륭한 준마를 얻으니 좋고 족장으로서는 위엄도 한결 돋구어질것이니 결국 일석이조라고 타산했다.

사냥놀이가 있는 다음날 밤이었다.

야생마를 몇번이고 붙잡으려다 모두 실패하고말았다는 마을의 한 젊은이를 찾아낸 박달족장은 날랜 군사 몇명과 말타기는 제노라고 자부하는 장수 두명을 이끌고 청계골 샘터에 이르렀다.

환웅은 젊은이의 안내를 받아 야생마가 몰마시러 내려올 때마다 통과하곤 한다는 샘터길목을 확인한 다음 그 길목에 서있는 나무들에 장수들을 한명씩 올라가 숨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좀 떨어진 량옆 수풀속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자신도 젊은이와 함께 샘터의 덩굴속에 었드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윽고 산관을 질게 감싸고있던 어둠의 잠막이 한결두껍 벗겨지고 동녘녘 하늘이 희끄무레 밝아올무렵이었다.

갑자기 어네선가 와작와작하고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듯 야생마의 호흡진 모습이 불쑥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장수할수 있는가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걸쳐 다 음과 같은 사람들이 장수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키가 적당한 사람

—인체의 잠재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수 있는 남자인 경우 1.65~1.68m, 녀자인 경우 1.59~1.62m인데 키가 너무 크면 수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복색과 가까이 하는 사람

복색은 심장의 박동을 낮추거나 느리게 한다. 그러므로 복색과 정상적으로 계속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는 사람의 수명은 길다.

—머리가 벗어진 남자

머리가 벗어진 남자들은 질병에 대한 독특한 저항우세를 보

이고있다. 머리가 벗어지는 원인은 남성 호르몬분비가 왕성한 데 있다.

—좋은 식사습관을 가진 사람

음식을 제때에 적당하게 먹으며 안정된 상태에서 음식물을 오래 동안 씹어 천천히 삼키는 좋은 식사습관은 장수에 리롭다.

—꿈이 많은 사람

어느 한 나라 연구자의 발견에 의하면 꿈이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길다고 한다.

—혈압이 약간 높은 사람

수축기혈압이 120mmHg, 확장기혈압이 70mmHg인 로인의 생존률은 그것이 각각 160mmHg, 90mmHg인 로인보다 훨씬 낫다.

본사기자

유모아 량반의 곱감장사

옛날 한 량반이 곱감장사를 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곱감을 한지개 짙어지고 동네를 나섰다.

그런데 량반의 체면에 《곱감사시오!》하는 말이 차마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침 《소금사시오!》하는 소리가 들려더니 곧 소금장사군이 나타났다.

량반은 얼른 그의 뒤를 따르며 소금장사군이 《소금사시오!》하고 소리칠 때마다 뒤에서 《곱감도—》하고 소리쳤다.